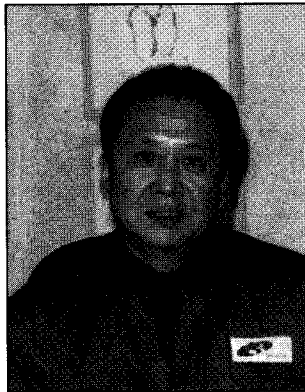


플라스틱컵 시장주도

자연과 조화되는 실용기 개발



▶ 제3프라스틱 전반기 사장

최근 슈퍼마켓이나 식품점 등에 가보면 식품포장용기가 고급스러워졌다는 것과 일회용 용기의 사용이 증가되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소비자들의 취향에 맞춘 디자인에 편리함까지 가미하였기 때문이다. 점점 갈수록 국민소득이 높아지고 생활패턴이 변화됨에 따라 소비자들의 편리함이 중요시되어, 일회용 용기의 사용은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키면서 많은 시간을 절약시키고 있다. 이에 가장 빠르게 대처하고 있는 분야는 음료시장이다. 음료의 포장형태를 보면 내용물 보호의 기능에 휴대의 편리성을 내세운 포장용기들이 선보여지고 있다. 기존에는 커피나 음료 등은 국한된 장소에서 마셔야 된다는 개념이었지

만 최근에는 이러한 개념에서 벗어나 아무런 곳에서나 들고 다니면서 마실 수 있다는 생각이 확산되고 있는 추세로 음료용기의 변화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흔히 젊은이들이 몰리는 거리마다 커피컵이나 음료 컵을 들고 다니는 이들을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다. 이렇다 보니 일회용 컵의 중요성도 점차 증가되고 있다. 이에 제3프라스틱에서는 기존의 종이컵의 단점을 보완한 플라스틱컵 생산에 주력을 다하고 있다.

제3프라스틱은 1968년 설립, 1988년 전반기 대표이사의 취임과 함께 법인 설립을 통해 재도약의 길을 열었으며, 현재 플라스틱컵 시장을 리드해 나가고 있다.

제3프라스틱의 전반기 사장은 “처음 제가 이 회사에 왔을 땐 거의 부도직전의 상태였습니다. 그러함에도 이 회사를 맡게된 것은 앞으로의 발전가능성과 미래가 충분히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인생에 있어서 몇 번 되지 않는 기회를 잘 이용한 것 같습니다. 더욱이 제3프라스틱은 오로지 컵 생산만을 고집하여 지금에 이른 것입니다. 이에 더욱더 자부심을 느낍니다”라고 밝혔다.

제3프라스틱은 ‘최선을 다하자’, ‘나부터 변화



▲ 제3프라스틱 임직원 야유회

자', '절약하자'라는 사훈에 맞게 전 직원들이 능동적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습이 역력했다. 더욱이 제3프라스틱을 구성하고 있는 직원들 대부분은 ROTC(Reserve Officers Training Corps) 출신인 전반기 사장의 후임들이나 대학교 선·후배들이 많아 가족적이고 편안한 분위기에서 협동과 단합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전반기 사장은 공장의 위치를 직원들의 건강을 고려하여 건축했고, 공장 내부에는 헬스장이나 휴식공간을 두어 직원들이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공장 옆에는 조그마한 텃밭을 두어 직원들이 스스로 가꾸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제3프라스틱만의 여유를 보여

주었다. 이렇다보니 제3프라스틱에는 장기근속자들이 많이 있으며, 직원들은 이에 더욱더 열심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 결과 ISO 9002 품질시스템 인증획득에 이어 지난 2000년에는 유망중소기업으로 지정되기도 하였다. 제3프라스틱은 그 기술을 인정받아 24시간 가동 중에 있으며, 세계적인 인류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편하여 운영하고 있다.

현재 제3프라스틱에서 생산되는 제품들은 할인점이나 패스트푸드점, 심지어는 거리에서도 사람들의 손에 들려 쉽게 볼 수 있다. 이는 국내 플라스틱컵 시장에서 제3프라스틱이 차지하는 범위를 짐작케 하는 것이다.



▲ 제3프라스틱 공장내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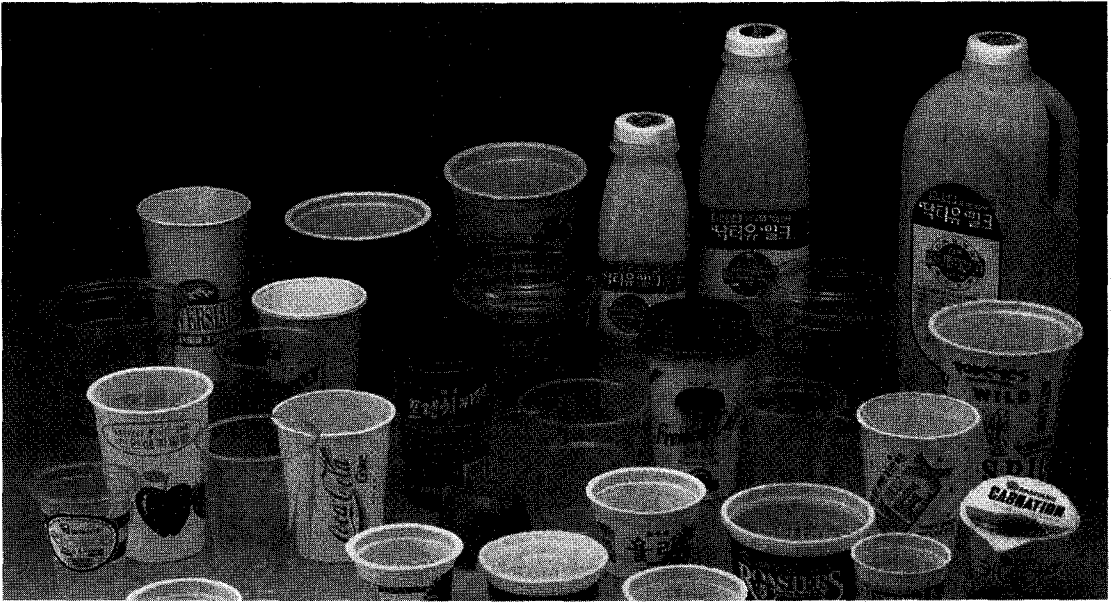
기존 커피시장에 신선한 생우유 및 원두커피를 사용하여, 젊은층을 대상으로 편리성을 강조한 컵 타입이 커피시장에 확산됨에 따라 제3프라스틱은 97년 7월 남양유업과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국내최초로 맛과 향을 장기간 보존하는 PS컵을 생산하고 있다. 현재는 컵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프렌치카페 컵 라인을 포함한 전 생산공정에 Clean Room과 Air Shower Room을 설치 운용 중이며, 생산에서부터 포장·출고까지 오염되지 않은 깨끗한 컵을 생산하기 위한 연구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또한 1989년 3월 국내최초로 호상요구르트컵을 압공성형하여 종이컵의 문제점을 완전히 해결

하여 남양유업의 꼬모컵 개발, 국산화했으며, 동양나이론과 기술협력하여 국내 최초로 원단표면의 대전 방지제 개발로 시장 유통시 문제되었던 먼지 묻는 현상을 완전히 해결했다. 현재 남양유업·농협목우촌·삼양식품 등에 연간 500만개의 컵을 생산·공급하고 있다.

이 밖에도 음료용컵으로 국내 최초로 컵 표면에 인쇄를 하여 시판하였고, 100가지의 금형을 보유하고 있어 다양하고 예쁜 인쇄컵 제품을 골고루 갖추고 있다.

제3프라스틱은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환경문제를 고려하여 자연과 조화되는 실용적인 용기 개발에 주력을 다하고 있다.



▲ 제3프라스틱 생산가공 제품

“흔히 ‘플라스틱은 환경을 오염시킨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플라스틱컵의 회수비율이 아직은 미비하지만 소비자들의 인식과 생활습관이 전환되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회수만 잘 이루어진다면 100%재활용이 가능합니다. 이는 환경적인 측면에서나 국가경쟁력 측면에서도 큰 이익이 될 것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재활용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나라도 많이 있습니다”라며 앞으로 우리나라도 재활용이 활발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만기 사장은 새로운 제품을 연구·개발하기 위해 해외에 나가는 일이 잦다.

“머리가 복잡하거나 새로운 것을 연구할 때는 무작정 해외로 나갑니다. 그래서 선진기술 보고 배우거나 그렇지 못할 때는 새로운 제품을 샘플

로 갖고 와 그것을 연구하여 더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내어 제3프라스틱만의 기술로 탈바꿈시키고 있습니다”라는 전만기 사장의 방 안에는 이렇게 수집된 세계의 플라스틱 용기가 진열되어 있다.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세계의 플라스틱 용기를 수집하여 그 수가 늘어나면 ‘플라스틱컵 전시회’를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생산되고 있는 제품 대부분이 젊은층을 타겟으로 하기 때문에 그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젊은 세대들의 생각과 문화를 공유하고자 노력한다는 제3프라스틱 전만기 사장을 비롯하여 전 직원의 패기 넘치는 모습에서 시대에 뒤떨어진 낙후된 제품이 아니라 더욱더 신선하고 새로운 제품 생산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제3프라스틱에 주목해 본다. ☐

권해진 기자